

“ 숨은 제자들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이름은 신자인데 숨어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자기 믿음을 표출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민피 숨어서 믿는 자들이었다. 니고데모는 예수 공생애 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고백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 왔고, 우리 주님이 경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침묵만 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 했으나 그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고, 그날 이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때를 놓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다 도망친 상태에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과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장례 할 터이니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담대함처럼 보이나 실상은 12 제자의 실패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죄 많은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봉사 와 헌금을 바치듯이 이들은 신행일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죽은 시체를 장례하겠다 함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고, 로마인에겐 시체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 이들이 나타났으니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도 덜 미안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숨은 제자들처럼 그들은 주님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는 허망함과 조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 년 전 UN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기권을 한 적이 있다. 불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다가올 심판 날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습관적 · 직업적 신앙인이었다. 타종교의 도덕성과 야합한 혼합주의 자유 세속화되어 불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유 교회 문화와 신앙 생활에서 단절된 자 즉 이름만 가진 신자(Nominalist)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내었다. 기회를 놓친 겁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도 막상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의 머리되심이 거부되며, 그의 몸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도 입을 열어 그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요셉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장례라도 해야겠다고 나섰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인내가 그를 끌어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 대신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이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땅도 하늘도 죽음도 성전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을 버렸다.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다.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시체를 달라 할 이유가 없다. 원수들이 멀리 가 위험은 사라졌다. 그리스도 편에 설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다. 부자유 권세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례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깝다. 지금은 당신이 일어나야 할 때다. 나는 아리마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빌라도도 없지만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당신은 죽을 준비되었는가? 영광 받으신 주님께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와야 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앞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할 줄 알면서,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숨은 제자 되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 절기에 나아오라 일어나라 대담하게 주님께 오라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만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영광을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 1499호] 2016년 4월 2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4:1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Remember My Chains”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계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계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관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망, 당, 싸, 콘,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싨단, 사유,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시, 윤왕모, 이금순, 김영명, 김덕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네 믿음을 보여라 ”

■ 약 2:18-26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지도하였고 흠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도들에게 실천하는 믿음, 보이는 믿음을 강조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에는 귀족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관리도 있었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야방인 그리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별로 따로 따로 교제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야고보 사도는 저들에게 실천적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보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시간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 ① 나는 예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 ②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③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약 2:17) 라고 말씀하지만 나눔만이 실천적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고백은 나눔보다 더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의 믿음에 앞서 고백의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 구원의 종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라고 책망하곤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이 없다 함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니를 부인하라’ 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믿음은 현재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우리들을 덮칠 때마다 우리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반제로 바치고 하십니다. 우리들 같으면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채비를 하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맺는 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스테반 그리고 요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 주제는 하나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라” 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함으로 생기고, 계명은 실천함으로 증거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고 세 번을 계속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내가 되어서 결속하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단결과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단결과 연합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보이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단결하고 연합하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승하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문석 장로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단 9:18 인 도 자
 찬 송 68(32) 다 함 께
 기 도 윤성남 집사
 성 경 계 15:3-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모세 아람의 노래와 계집 잔" ... 설 교 자
 * 찬 송 146(14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압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마 21: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9(종려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6(3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0:38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자기 십자가"... 심우진 목사
 * 찬 송 Hymn150(13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최승원 전도사

기 도 하현숙 권사
 성 경 마 16:13-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화는 나를 누그러 하느냐" ... 설 교 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해란·김정원·박수강·김복화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교역자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권사회 / 25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해군 교육사교회 진중세례식 / 28일(수) 오후 6시30분(교회출발 오전 9시)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김관섭(영성의학)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정진(성형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고난주간 /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101호에서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설교: 월/이종운 원로목사, 화/서명철 목사, 수/장석남 목사, 목/심우진 목사, 금/조원영 목사, 토/김의창 목사
금식: 30일(금) 해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헌금으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합니다.)
14. 4월1일(주)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예배는 오전 5시 101호에서 드립니다. (설교: 전재홍 목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6. 심우진 목사 소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사 및 석사 (B.Th., M.Th.)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박사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M.Div.)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신약학교수 서울장신대학교 도서관장 역임 서울교회 협동목사</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13명	265명	225명	1,403명	162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1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18일	헌 금	17,915,100	
"	특별예배비		700,000
	행 사 비		761,620
"	출 판 비		270,000
	인 건 비		12,881,000
	통 신 비		2,658,550
	소모품비		1,522,500
"	차량유지비		119,600
	환경유지비		219,000
	수선유지비		1,524,250
	예 수 금	7,154,280	
"	식당운영비		1,159,100
	합 계	17,915,100	28,969,900